

입 관 예 식

집례: 정일우목사

예 식 사 집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493장

기 도 안동훈 장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2

설 교 두 종류의 집 / 정일우 목사

찬 송 480장

축 도 집례자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1.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하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2.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져 맞으리
3.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고린도후서 5:1-2

-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
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
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봉 안 예 식

집례: 정일우목사

예 식 사 집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492장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4:13 / 집례자

설 교 복된 죽음 / 집례자

안치기도 집례자

축 도 집례자

253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1.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세상 떠날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요한계시록 14:13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
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
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
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
시더라

故 용 호 택 명예장로 장례예배



†입관예식: 9월 15일(주일) 오후 3시30분

†장소: 홍천아산병원 장례식장

†장례예식: 9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홍천성결교회 대예배실

†장지: 춘천안식원 / 홍천군공설묘원

 **홍천성결교회**
Hong Cheo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장례(발인)예식

집례: 정일우 목사

예식사	집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다같이
기도	문종길장로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4:6-8 / 집례자
말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집례자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조사	김기수장로
약력보고	집례자
추모묵념	다같이
축도	집례자

디모데후서 4:6-8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리
 2.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곤한 나의 몸 설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을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
-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리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뱃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故 翁호택장로 약력 및 유족

- * 1946년 1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출생
- * 1984년 12월 소망교회(곽선희목사) 세례
- * 1999년 4월 23일 온누리교회(하용조목사) 집사 안수
- * 2014년 3월 9일 홍천성결교회 장로장립
- * 2016년 2월 21일 홍천성결교회 명예장로 추대
- * 2019년 9월 14일 소천(향년73세)
- * 유족 未亡人 / 김순화 권사

子/ 용문관 子婦/ 정채린 女/ 경화 성화 婿/ 최원혁,정재운
 孫/ 용주하,은하 최만호,민준,인아 정주원